

새천년을 맞이한 통우연의 역할 강화



인류사회는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사회를 다원화와 다양성의 사회로 규정하고 개체중심문화의 조화로운 결집과 합리성의 추구에 가치를 부여하여 놀라운 질서를 유지하면서 역사를 진전시켜 왔습니다.

다양화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각종 정보의 요구는 지식정보화사회로 일컬어지는 현대문명사회를 더욱 촉진하고 있으며, 정보화사회 촉진을 위한 새로운 기술수요를 계속적으로 유발하여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과제를 안겨주고, 다원화의 사회구조는 더 진전된 인프라와 정교기술을 요구함으로써

갈등과 시도와 감동과 시련이 점철을 이루면서 순환의 역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순환의 역사 현장에서 살아가는 한 시대적 사명을 다하고 또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과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고민하고 갈등을 감내하여야 하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통신위성·우주산업연구회의 존재이유의 인식아래 상황진전과 현실성을 바탕으로 한 연구회의 역할과 기능과 책무를 규정하고 실현하는 일과 단체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추구하여야 할 당면문제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연구회 발족이 적지 않은 10여 성상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국내 위성사업의 불모지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위성통신 및 우주산업분야의 기술적 정책적 오피니언의 리더그룹으로서의 역할과 업적에 찬사를 보내지 않는 바 아니지만 이제 새로운 목표설정과 아울러 실질적 기능면에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인식하에 본 연구회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것이 필자의 견해입니다.

변화의 시도가 형식상의 문제가 아니라 연구회의 기능면이나 산·학·연·관의 전문가 연합단체로서의 역할 강화와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오피니언 리더십 강화를 위한 업무 활성화, 회원서비스 향상 등 임원 및 회원활동의 강화가 그 요체의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제 10주년의 성상을 맞이한 시기에서 이러한 발전의 모색을 논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연구회를 애정으로 지켜주시는 관련 모든 선·후배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떠들썩하던 새 밀레니엄의 첫해도 마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연구회는 연도 초의 사업계획에 따라 그 동안 사업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이제 하반기에 추진계획인 남은 사업들을 잘 추수려야 할 때입니다. 특히 12월에 개최하는 한·일 위성통신 컨퍼런스 및 전시회(KJJC-SAT 2000)는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일본 전자정보통신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로써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준비하고 있지만 회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력이 요망되는 행사입니다.

한편 금년에 새로 신설한 ITS 전문위원회가 추진하는 지능형 교통시스템 정보통신 기술 워크샵 및 전시회 또한 정보통신진흥사업으로 지정 받아 수행하게 되어 연구회의 사업영역이 한층 넓어지고 있으며 또한 성원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금년에는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한국통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각급 기관으로부터 연구프로젝트를 위탁받아 수행하게 되어 전문 기술 및 기술정책분야의 전문가 집단으로서 우리 연구회의 능력을 인정받는 해가 되었고 위상이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 통신방송위성개발사업 등 일련의 사업계획이나, 위성인터넷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업체들의 동향은 더욱더 우리 위성전문인들을 바쁘게 하리라는 것을 감지하면서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사회를 대비하여야 하는 많은 난제들이 때로는 어렵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이며 활동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미래사회는 준비하고 추구하는 자의 몫입니다. 산업진흥 및 기술보국의 리더로서 미래사회를 내가 책임진다는 자부심으로 힘차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정진해 나갑시다.

회원 여러분의 건투와 통우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0. 10.

부회장 김 재 명